

현대캐피탈 '절대강자'라고?

V-리그 독주 예상 깨고
조직력 봉괴·거포 부재
시즌 초반 2연패 '충격'

'새내기 거포' 문성민(24·현대캐피탈)의 1리운드 출장정지 공백 탓인가.

4일 막을 올린 2010-2011 시즌 프로배구에서 남자부의 '절대 강자'로 군림할 것으로 보였던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가 개막 후 2연패 부진을 겪으며 출발이 좋지 않다.

정태영 현대캐피탈 구단주는 지난달 29일 출정식 행사 때 2006-2007 시즌 우승 이후 4년 만의 V-리그 정상 탈환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조마조마하지 않고 여유 있게 우승했으면 좋겠다'며 남자부 최강으로 떠오른 선수단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대캐피탈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독일과 터키 리그에서 뛰었던 대표팀의 '주포' 문성민을 트레이드 형식으로 영입하고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특급 외국인 선수 헤터 소토(32)를 데려왔다.

'왼손 거포' 박철우(25)가 자유계약선수(FA)로 끌려 삼성화재에 내줬지만 보상 선수로 최고의 세터 최대웅(34)과 베테랑 레프트 이형우(30)를 보강했다.

문성민은 KEPCO45로부터 트레이드하면서 센터 하경민(28)과 레프트 임시형(25)을 보냈지만 센터진은 '거미손' 이선규(29)와 유풍우(28)가 버티고 있어 남자부 7개 구단 중 최강이다. 여기에 주전 세터 권영민(30)과 리베로 오정록(30)에 주장인 백진노장 후인정(36)과 라이트 주상용(28), 레프트 장영기(30), 이철규(26) 등 백업진도 두텁다.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막강 전력을 보



7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경기에서 현대캐피탈의 이선규가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한 현대캐피탈은 그러나 독주 예상을 깨고 시즌 초반 흔들리고 있다.

지난 4일 개막 경기에서 라이벌 삼성화재에 1-3으로 무릎을 끊었다. 첫 세트 뉴스 접전을 펼치고 3세트를 따냈지만 4세트엔 12-25의 큰 점수차 패배를 당해 '유력한 우승 후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무색케 했다.

현대캐피탈은 실상가상으로 흠개막전이었던 7일 대한항공과 경기에서는 0-3으로 완파하는 수모를 겪었다. 정규리그에서 2연패를 당한 건 지난해 3월 이후 1년 9개월여 만이다. 주전 레프트인 문성민이 지난 2008년 신인 드리프트 거부를 이유로 한국배구 연맹 징계를 받아 1리운드 6경기에 뛰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성민을 제외한 주전 선수들을 총가동하고도 거둔 성적표에서 충격이 더욱 크다.

확실한 해결사 구실을 해줄 것으로 기대

했던 소토는 아직 적응이 될 된 탓도 있으나 삼성화재의 '캐나다산 폭격기' 가빈 슈미트(24)의 공격력에 못 미쳤고 대한항공의 에반 페이텍(26)과 맞대결에서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김호철 현대캐피탈 감독은 "1, 2차전 모두 아직 조직력이 저하되어 떨어진다. 개인 능력에 의존하다 보니 어렵고 실책도 너무 많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권영민도 대표팀 차출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속공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현대캐피탈은 문성민 없이 우리캐피탈(12일), 삼무(19일), KEPCO45(21일), LIG 순회보(26일)과 남은 1리운드 경기를 치러야 한다. 개막 후 2연패에 빠진 현대캐피탈이 충격을 딛고 1리운드 고비를 넘긴 후 2리운드부터 절대 강자의 위용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에서 열린 '2010 세계 태권도 한미당' 개막식에서 국기원 시범단이 태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태권 격파

이보미, KLPGA 퀸 등극

대상·상금왕 등 4관왕



연 (23·SK텔 레콤)이 US LPGA 대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날 시상식에

서는 KLPGA 회원들과 사무국 임직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합창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냈고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에 출연했던 허각과 존박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KLPGA는 하이원 리조트컵 SBS 채리티 여자오픈에서 마련한 자선기금을 KLPGA 공식 매니저센터인 분당서울대병원의 불곡 후원회에 저소득층 독거 노인 치료를 위해 전달했다. /연합뉴스

이날 시상식에서는 KLPGA 회원들과 사무국 임직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합창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냈고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에 출연했던 허각과 존박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KLPGA는 하이원 리조트컵 SBS 채리티 여자오픈에서 마련한 자선기금을 KLPGA 공식 매니저센터인 분당서울대병원의 불곡 후원회에 저소득층 독거 노인 치료를 위해 전달했다. /연합뉴스

(JLPGA) 출전권까지 확보하는 등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하지만 이보미는 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JLPGA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시상식에 참가하지 못해 영상으로 수상소감을 전했다. 블빅 라일랜드 코트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조윤지(19·한솔)가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신인상을 받았고 양수진(19·蘼)은 기자단과 운동인 투표에서 2762표를 받아 가장 인기 있는 선수로 선정됐다.

또한 일본 무대에서 4승을 거두며 한국인 여자오픈에서 마련한 자선기금을 KLPGA 공식 매니저센터인 분당서울대병원의 불곡 후원회에 저소득층 독거 노인 치료를 위해 전달했다. /연합뉴스

이날 시상식에서는 KLPGA 회원들과 사무국 임직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합창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냈고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에 출연했던 허각과 존박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KLPGA는 하이원 리조트컵 SBS 채리티 여자오픈에서 마련한 자선기금을 KLPGA 공식 매니저센터인 분당서울대병원의 불곡 후원회에 저소득층 독거 노인 치료를 위해 전달했다. /연합뉴스

이날 시상식에서는 KLPGA 회원들과 사무국 임직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합창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냈고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에 출연했던 허각과 존박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KLPGA는 하이원 리조트컵 SBS 채리티 여자오픈에서 마련한 자선기금을 KLPGA 공식 매니저센터인 분당서울대병원의 불곡 후원회에 저소득층 독거 노인 치료를 위해 전달했다. /연합뉴스

이날 시상식에서는 KLPGA 회원들과 사무국 임직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합창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냈고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에 출연했던 허각과 존박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KLPGA는 하이원 리조트컵 SBS 채리티 여자오픈에서 마련한 자선기금을 KLPGA 공식 매니저센터인 분당서울대병원의 불곡 후원회에 저소득층 독거 노인 치료를 위해 전달했다. /연합뉴스

이날 시상식에서는 KLPGA 회원들과 사무국 임직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합창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냈고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에 출연했던 허각과 존박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KLPGA는 하이원 리조트컵 SBS 채리티 여자오픈에서 마련한 자선기금을 KLPGA 공식 매니저센터인 분당서울대병원의 불곡 후원회에 저소득층 독거 노인 치료를 위해 전달했다. /연합뉴스

이날 시상식에서는 KLPGA 회원들과 사무국 임직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합창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냈고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에 출연했던 허각과 존박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KLPGA는 하이원 리조트컵 SBS 채리티 여자오픈에서 마련한 자선기금을 KLPGA 공식 매니저센터인 분당서울대병원의 불곡 후원회에 저소득층 독거 노인 치료를 위해 전달했다. /연합뉴스

이날 시상식에서는 KLPGA 회원들과 사무국 임직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합창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냈고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에 출연했던 허각과 존박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KLPGA는 하이원 리조트컵 SBS 채리티 여자오픈에서 마련한 자선기금을 KLPGA 공식 매니저센터인 분당서울대병원의 불곡 후원회에 저소득층 독거 노인 치료를 위해 전달했다. /연합뉴스

태권도 프로화 추진 성공할까

월드 투어… 10일 모스크바

세계태권도연맹(WTF)이 태권도의 프로화 가능성을 모색하며 개최하는 2010 WTF 월드태권도투어가 10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마술아츠센터에서 세 차례나 우승(2005, 2009, 2010년)을 차지한 강호다.

지난해 11월 멕시코에서 첫 대회를 치르고 나서 2회째를 맞은 올해에는 개인전 외에 5인조 단체전 경기를 도입하고 총 18명의 선수를 초청했다.

개인전은 남자 80kg 초과급과 여자 67kg 초과급 등 두 체급 경기로 치른다.

남자 80kg 초과급에는 러시아, 이탈리

아, 카자흐스탄, 이란 대표가 참가하고 여자 67kg초과급에는 지유선(수원시 청)이 한국 대표로 나서 러시아, 스페인, 영국 선수와 기량을 겨룬다.

지유선은 코리아오늘 국제태권도대회에서 세 차례나 우승(2005, 2009, 2010년)을 차지한 강호다.

국내 실업연맹 주관 대회에서 선을 보여 호평을 받은 5인조 경기로 치를 단체전에서는 한국의 성남시청 팀이 러시아 선발팀과 격돌한다.

팀당 5명씩 출전해 감독의 교체 요청에 따라 수시로 선수를 바꿔 가며 대결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박태환 포상금 대박

후원사 SK텔서 3억6500만원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수영스타 박태환(21·단국대)이 후원사인 SK텔레콤으로부터 3억65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박태환 전담팀을 꾸린 SK텔레콤은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뛰어난 성적을 달성한 박태환에게 특별 인센티브 3억 6500만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포상금은 개인 종목에서 금메달 1개당 7000만 원, 은메달 1개당 5000만 원, 동메달 1개당 3000만 원이고, 단체전은 개인 종목의 50%가 책정됐다. 아시아 신기록에 대한 500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준다.

박태환은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100m, 200m, 400m에서 금메달을 따 3관왕에 올랐다. /연합뉴스

정다래 후원금 1억

아레나 의류용품 등 2년 계약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평영 200m에서 금메달을 딴 수영 스타 정다래(19·전남수영연맹)가 2년 동안 아스포츠브랜드 아레나의 지원을 받는다. 정다래는 8일 송파구 풍납동 아레나 본사에서 아레나와 후원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2년 런던올림픽 때까지 2년이며, 정다래는 아레나로부터 계약금을 포함해 대회 참가와 훈련에 필요한 의류 및 용품 등 총 1억 원가량을 지원받는다.

정다래는 "안정적으로 수영에 대한 전념할 수 있어 기쁘다. 이제 런던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행식 아레나 상무는 "자신과 싸움에서 당당히 이겨내 금메달을 목에 건 정다래 선수의 아름다운 스포츠 정신이 아레나의 브랜드 이미지와 맞아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 정다래 선수가 내년 상하이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핵주먹' 타이슨·배우 스텔론

국제복싱 명예의 전당 입성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44)과 영화 '로키'의 주연 배우 실버스터 스텔론(64)이 국제복싱 명예의 전당(BIFHOF)에 입성한다.

AP와 AFP통신 등은 8일(한국시간) 타이슨과 스텔론이 내년 국제복싱 명예의 전당 가입자 12명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정식 헌액식은 내년 6월 13일 뉴욕 캐나다 토티의 명예의 전당 박물관에서 열린다. 지난해에는 1980년대 프로복싱에서 활약한 타이슨과 스텔론이 내년 국제복싱 명예의 전당에 선정됐다. 정식 헌액식은 내년 6월 13일 뉴욕 캐나다 토티의 명예의 전당 박물관에서 열린다. 지난해에는 1980년대 프로복싱에서 활약한 타이슨과 스텔론이 내년 국제복싱 명예의 전당에 선정됐다.

정식 헌액식은 내년 6월 13일 뉴욕 캐나다 토티의 명예의 전당 박물관에서 열린다. 지난해에는 1980년대 프로복싱에서 활약한 타이슨과 스텔론이 내년 국제복싱 명예의 전당에 선정됐다.

정식 헌액식은 내년 6월 13일 뉴욕 캐나다 토티의 명예의 전당 박물관에서 열린다. 지난해에는 1980년대 프로복싱에서 활약한 타이슨과 스텔론이 내년 국제복싱 명예의 전당에 선정됐다.

정식 헌액식은 내년 6월 13일 뉴욕 캐나다 토티의 명예의 전당 박물관에서 열린다. 지난해에는 1980년대 프로복싱에서 활약한 타이슨과 스텔론이 내년 국제복싱 명예의 전당에 선정됐다.

정식 헌액식은 내년 6월 13일 뉴욕 캐나다 토티의 명예의 전당 박물관에서 열린다. 지난해에는 1980년대 프로복싱에서 활약한 타이